



단결과 연대로 책임지는 경주지부!

# 경주지부 집단교섭 속도 9호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전화 : 054-748-3223 팩스 : 773-9270 인터넷 : <http://gj.kmwu.kr> 발행일 : 2026.06.25(목)

## 추가 제시안 없는 사측, 지부집단교섭 **결렬** 선언

**초기업 교섭 1개 조항 의견접근, 임금 포함 추가 제시안 없어..**



금속노조 경주지부 제9차 집단교섭이 6월 25일(목) 14시, 에코플라스틱지회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교섭에는 현장순회 없이 14시부터 진행되었으며, 노측 정진홍 지부장 외 21명, 사측 우영산업 김대근 본부장 외 12명이 참석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교섭에 들어갔다.



교섭대표 모두발언에서 우영산업 김대근 노사상생본부장은 “지난 9차 교섭까지 주요 요구안 설명과 질의응답, 노·사 간 제시안 교환까지 진행됐다”며 “교

섭을 하다 보면 같은 내용을 두고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대화를 멈추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 대표는 “23일 중앙교섭이 결렬됐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교섭에 참여한 노·사 모두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모두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다시 교섭 테이블에서 마주 앉아 논의를 이어가고, 올해 교섭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정진홍 지부장은 “긔은 날씨에도 교섭이 잘될 수 있도록 준비한 에코플라스틱지회 간부 동지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오늘은 더 이상 제시안이 없으면 결렬을 선언하는 날”이라고 밝혔다. 이어 “9번의 교섭을 진행했음에도 노·사 간 차이가 많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지부장은 “올해 지부집단교섭 요구안은 각 사별 사정을 이유로 설명하기에는 이해할수 없다”라며 “각 사별로 특별히 비용이 크게 발생하거나 큰 문제가 없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초기업 교섭 활성화 및 노·사 공동 대지자체 요구와 관련해 “전체 항은 중앙교섭 결과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어 전체 조항으로는 의견접근할 수 없지만, 3항과 4항은 의견접근되는 것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정 지부장은 “새로운 교섭과 새로운 합의도 중요하지만 기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신뢰의 문제”라며 “현대아이에이치엘은 집단교섭 합의를 사무직 조합원 문제와 관련해 아직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 더 큰 파업을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오늘 결렬되면 다시 교섭하는 기간은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그 기간 속 고해서 빠른 타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후 교섭 의제와 관련한 논의에서 사측은 “다른 조항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금일 제시안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금속노조 경주지부 정진홍 지부장은 “임금을 포함해 추가 제시안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2026년 지부집단교섭은 결렬 선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발언이 없음을 확인하고 교섭을 마무리했으며, 차

기 교섭 일정은 실무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사측제시안

1. [초기업 교섭 활성화 노사 공동 대지자체 요구] - 수정 제시안 - 8차 교섭 (26.06.18)

- (요구안) 기재 생략
- (제시안) ①, ② 중앙교섭 결과에 따른다. ③ 지자체(경주시)는 지역 금속 노사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책의 실효성,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정 협의체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금속 노사의 전문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지부집단교섭 참여 주체들의 실질적인 거버넌스 활동을 보장한다. 요구안 수용

④ 요구안 수용

2. 제 19 조 【 채용 】 (항추가) - 수정 제시안 - 수정 제시안 - 8차 교섭 (26.06.18)

- (요구안) 기재 생략
- (제시안)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채용인원과 전형 방법을 공개하며, 그 절차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① 직원의 채용은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 단, 지원자 또는 적격자가 없을 시 기존의 채용방식을 따른다.

3. 【 노조법 개정(시행령)에 따른 교섭권 보장 】 - 추후 제출

- (요구안) 기재 생략
- (제시안) ①, ② 수정 제시안 검토중.
- ③ 요구안 수용

